

구석기·신석기 시대의 생활

대치동 재우쌤 한국사 · A01

구석기·신석기의 변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거리를 구하며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으며, 농경(작물을 기르는 일)과 목축(가축을 기르는 일)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모든 지역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것은 아니며, 신석기 시대에도 사냥·채집·고기잡이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Q01 선사 시대는 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나요?

한 줄 답

돌로 만든 도구의 제작 방식에 차이가 있고, 먹을거리를 구하는 방법과 주거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용어 풀이

선사 시대: 당시 사람들이 문자로 남긴 기록이 없는 시대.

석기: 돌로 만든 도구. 구석기는 ‘옛 석기’, 신석기는 ‘새 석기’라는 뜻이며, 석기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시대 이름을 붙임.

뎨석기: 돌의 일부를 깨뜨려 떼어 내면서 모양과 날을 만든 도구.

간석기: 돌의 표면이나 날을 갈아 다듬은 도구.

1.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와 같은 뎨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얻었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 거처를 옮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2.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와 토기의 사용, 정착 생활, 농경의 시작 등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뎨석기를 함께 사용했으므로, 새 도구가 등장했다고 이전 도구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3. 정리하면, 두 시대의 이름은 석기를 만드는 방법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먹을거리를 얻고 저장하는 방법과 모여 사는 모습까지 함께 달라졌습니다. 도구의 변화는 생활 모습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구석기의 특징은 ‘뎨석기·사냥과 채집·이동 생활’, 신석기의 특징은 ‘간석기·토기·농경의 시작·정착 생활’입니다. 신석기에도 사냥과 채집은 계속되었습니다.

Q02 뎨석기와 간석기는 무엇이 다르고, 왜 간석기가 등장했나요?

한 줄 답

뎨석기는 돌을 깨뜨려 떼어 내며 만들고, 간석기는 돌을 갈아 다듬어 만듭니다. 신석기 시대에 나무를 베고 다듬거나 땅을 파는 등 할 일이 다양해지자, 쓰임새에 맞게 날과 모양을 다듬은 간석기가 널리 만들어졌습니다.

용어 풀이

주먹도끼: 손에 쥐고 여러 작업에 사용한 대표적인 뎨석기.

간돌도끼: 돌을 갈아 날을 세운 도끼로, 나무를 베거나 다듬는 데 씀. 뎨석기인 주먹도끼와 만드는 방법이 다름.

1. 뎨석기는 돌을 아무렇게나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양과 날을 만들기 위해 돌을 고르고 알맞은 부분을 떼어 냈습니다. 주먹도끼나 굽개(가죽이나 고기를 굽어 다듬는 도구)처럼 고기를 손질하거나 가죽을 다루는 데 쓰인 여러 도구가 있었습니다.
2. 간석기는 돌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갈아 표면과 날을 다듬은 도구입니다. 나무를 베는 간돌도끼, 사냥에 쓰는 간 돌화살촉 등 다양한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돌을 떼어 내며 모양을 잡은 뒤, 갈기 기술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고르게 다듬고 날의 각도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돌 자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석기 시대에는 한곳에 머물며 집을 짓고, 나무를 베어 다듬고, 땅을 파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농사도 이런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일에는 날과 모양을 쓰임새에 맞게 다듬은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간석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떼기 기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사람들은 돌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두 기술을 함께 썼습니다.

시험 포인트

뎨석기와 간석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만드는 방법’입니다. 간석기는 농사 외에도 여러 작업에 쓰였으며, 돌을 갈아도 돌 자체가 더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1. 돌을 떼어 내는 방법과 갈아 다듬는 방법



왼쪽은 돌의 일부를 떼어 내어 모양과 날을 만드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돌을 갈아 표면과 날을 다듬는 모습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두 기술을 함께 썼습니다. 제작 방법을 보여 주는 재구성 그림입니다.

Q03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이동 생활을 했나요?

한 줄 답

사냥감과 먹을 수 있는 식물이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찾아 거처를 옮겼습니다.

용어 풀이

채집: 자연에서 열매나 식물의 뿌리 등을 얻는 일.

이동 생활: 먹을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찾아 거처를 옮기는 생활.

막집: 나뭇가지나 짐승 가죽 등을 이용해 만든 간단한 집.

1.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의 열매나 뿌리를 채집하며 식량을 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주변의 먹을거리가 줄면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2. 사람들은 머무는 곳 근처의 동굴이나 바위 그늘(바위가 지붕처럼 튀어나와 비바람을 막아 주는 곳)을 이용하기도 하고, 야외에 막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동 생활은 사람들이 거처를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동굴이나 집 자체를 항상 옮겨 다녔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한 장소에 잠시 머물면서 사냥하거나 도구를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동 생활은 쉬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자원과 계절 변화에 맞추어 생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시험 포인트

이동 생활의 원인: 사냥·채집에 의존 → 먹을거리의 위치와 양이 달라짐 → 거처 이동.

Q04 신석기 시대에 농사와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한 줄 답

식량을 구하는 방법에 농경과 목축이 더해졌고, 한곳에 모여 사는 마을과 공동체 생활이 발달했습니다.

용어 풀이

농경: 땅을 일구고 곡식 등의 작물을 기르는 일.

정착 생활: 한곳에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움집: 땅을 파서 바닥을 주변보다 낮게 만들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집.

씨족·부족: 씨족은 혈연(핏줄로 맺어진 관계)을 바탕으로 한 집단이며, 여러 씨족이 결합한 공동체를 부족이라고 함.

1. 신석기 시대에는 조와 기장 같은 곡식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거리를 자연에서 얻는 일에 직접 작물을 기르는 일이 더해진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목축도 이 무렵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모두 농사만 지은 것은 아니며, 사냥·채집·고기잡이도 계속 중요했습니다.
2.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 등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물과 여러 먹을거리를 얻기 좋은 환경은 한곳에 머무는 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기르려면 씨를 뿌리고 자라는 동안 돌본 뒤 때맞춰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밭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 유리했고, 거둔 곡식을 저장해 두면 먹을거리를 찾아 멀리 옮겨 다닐 필요도 줄었습니다. 다만 '농사를 시작한 날부터 모든 사람이 정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함께 살면서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나누는 공동체 생활도 발달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씨족이 모여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다스리는 사람(지배층)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피지배층)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뉘는 계급이 생기고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시험 포인트

신석기의 변화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정착 생활·마을과 부족 사회·평등 사회'입니다.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사냥·채집이 사라지거나 곧바로 국가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림 2. 강가에 모여 사는 사람들



강가에 움집이 모여 있고, 앞쪽에서는 작물을 돌보거나 식물을 채집하며 물가에서는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농경이 시작된 뒤에도 채집과 고기잡이를 함께 했습니다. 생활 모습을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Q05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왜 토기를 만들었나요?

한 줄 답

여러 먹을거리를 담아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용어 풀이

토기: 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운 그릇.

조리: 먹을거리를 삶거나 끓이는 등 음식으로 만드는 일.

저장: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식량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일.

1. 사람들은 채집한 열매나 재배한 곡식 등 여러 먹을거리를 담고 보관할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토기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토기의 쓰임은 농사로 얻은 곡식의 저장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2. 토기를 이용하면 물과 먹을거리를 함께 담아 끓이는 등 조리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토기는 단순히 물건을 담는 그릇을 넘어, 음식을 마련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3. 토기는 무겁고 깨지기 쉬워 들고 옮겨 다니기에는 불편합니다. 한곳에 머무는 생활에서는 토기를 두고 계속 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토기가 농사보다 먼저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토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곳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포인트

토기는 음식의 조리과 식량의 보관에 쓰였습니다. 토기에 담은 먹을거리는 곡식뿐 아니라 여러 종류였습니다.

Q06 빗살무늬 토기는 왜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인가요?

한 줄 답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널리 발견되고, 다른 시대 토기와 구별되는 무늬가 있어 신석기 시대를 알아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어 풀이

빗살무늬 토기: 표면에 빗살(머리빗의 가늘고 촘촘한 살)처럼 보이는 선을 비롯한 여러 무늬를 새긴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

유물: 과거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용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물건.

유적: 과거 사람들이 살거나 활동한 흔적이 남아 있는 곳.

1. 빗살무늬 토기는 겉면에 새긴 특징적인 무늬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서울 한강가에 있는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에서 나온 토기처럼 신석기 시대의 집터와 함께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암사동에서 나온 토기처럼 밑이 뾰족한 것도 있고, 둥글거나 납작한 것도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밑의 모양이 다양하고 표면에 특징적인 무늬가 있습니다.
2. 이러한 토기는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을거리를 담고 보관하는 생활과 연결됩니다. 집터나 다른 도구를 함께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입니다. 다만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모두 빗살무늬 토기였던 것은 아닙니다.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진 토기도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여러 작업에 쓰인 도구이고,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을거리를 담는 데 쓰인 그릇입니다.

그림 3. 빗살무늬 토기의 무늬와 밑 모양



왼쪽 토기는 밑이 뾰족하고 오른쪽 토기는 밑이 둥근 모양입니다. 두 토기의 표면에는 선을 새긴 무늬가 있으며, 오른쪽 위는 무늬를 확대한 모습입니다. 형태의 예를 재구성한 그림이며 실제 유물 사진은 아닙니다.

한눈에 정리

구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대표 도구·유물	뎨석기, 주먹도끼	간석기, 토기(빗살무늬 토기 등)
식량 마련	사냥과 채집	농경과 목축 시작, 사냥·채집·고기잡이도 함께 함
주거와 생활	동굴·바위 그늘·막집, 먹을거리를 찾아 이동	움집과 마을, 정착 생활 시작, 씨족·부족 중심의 평등한 공동체
이해할 점	이동은 자연의 자원과 계절 변화에 적응한 생활 방식	간석기가 나와도 뎨석기를, 농사를 지어도 사냥·채집·고기잡이를 함께 함

시대 비교의 세 기준: 도구의 제작 방식, 먹을거리를 얻고 이용하는 방법, 주거와 공동체 생활.

확인 문제

확인 01

석기를 만드는 방법에 맞는 이름을 쓰세요.

ㄱ. 돌의 일부를 깨뜨려 떼어 내며 모양과 날을 만든 도구: _____

ㄴ. 돌의 표면이나 날을 갈아 다듬은 도구: _____

확인 02

신석기 시대에 간석기가 여러 작업에 이용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돌을 갈면 돌 자체가 더 단단한 물질로 바뀌기 때문이다.
- ② 나무를 다듬거나 땅을 파는 일에 맞게 표면과 날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③ 간석기는 농사에만 쓸 수 있어 다른 작업과 쉽게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 ④ 간석기는 날을 다듬지 않아도 모든 작업에 같은 모양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답: _____

확인 03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농사지은 곡식을 다른 마을에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 ② 사용하던 동굴을 통째로 옮기기 위해서이다.
- ③ 당시에는 한 장소에서 잠시 머무는 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 ④ 사냥감이나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답: _____

확인 04

땅을 파서 바닥을 주변보다 낮게 만들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신석기 시대의 집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 _____

확인 05

각 활동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ㄱ. 땅을 일구어 조와 기장 같은 작물을 기름: _____

ㄴ. 가축을 기름: _____

확인 06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밭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 유리했던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세요. 곡식이 자라는 동안 해야 했던 일과, 다 자란 뒤에 해야 했던 일을 모두 넣으세요.

답: _____

확인 07

신석기 시대의 사회를 ‘평등 사회’라고 설명하는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사람들 사이에 씨족이나 부족 같은 공동체가 없었다.
- ② 지배층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 ③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는 뚜렷한 계급 차이가 없었다.
- ④ 농경이 시작되자마자 국가가 세워져 사람들을 다스렸다.

답: _____

확인 08

토기를 사용하는 다음 두 행동은 각각 어떤 쓰임에 해당하나요? 본문에서 배운 용어를 쓰세요.

ㄱ. 나중에 먹으려고 먹을거리를 담아 둬: _____

ㄴ. 물과 먹을거리를 함께 담아 끓임: _____

확인 09

한 학생이 “이 유적에서 토기가 나왔으니, 여기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농사를 지었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우리나라에서는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토기를 사용했다.
- ② 토기는 농사로 얻은 곡식을 담는 데에만 사용했다.
- ③ 토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 ④ 토기를 사용하면 사냥과 채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답: _____

확인 10

각 유물이 대표하는 시대의 이름을 쓰세요.

ㄱ. 주먹도끼: _____ 시대

ㄴ. 빗살무늬 토기: _____ 시대

확인 11

빗살무늬 토기를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물로 보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구석기 시대부터 모든 시대 사람들이 같은 모양으로 사용한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토기가 모두 빗살무늬 토기였기 때문이다.
- ③ 서울 암사동 유적 한 곳에서만 발견되어 그 유적의 생활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 ④ 여러 지역에서 널리 발견되고 특징적인 무늬가 있어 당시의 문화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답: _____

확인 12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간석기와 뚝석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만 썼으므로, 함께 나올 수 없는 유물이다.
- ② 새 도구가 등장한 뒤에도 사람들은 쓰임새에 따라 이전 도구를 함께 사용했다.
- ③ 뚝석기가 있다는 사실은 이곳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 ④ 간석기가 있다는 사실은 이곳에 이미 국가가 있었다는 뜻이다.

답: _____

정답과 해설

확인 01 정답과 해설

정답: ㄱ. 뿔석기 / ㄴ. 간석기

두 이름은 돌을 다듬는 방법과 연결됩니다. 뿔석기는 돌의 일부를 깨뜨려 떼어 내고, 간석기는 돌의 표면이나 날을 갈아 다듬습니다. 간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먼저 돌을 떼어 내어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본문: Q01·Q02

확인 02 정답과 해설

정답: ②

나무를 베고 다듬거나 땅을 파는 일에는 용도에 맞는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갈기 기술을 이용하면 울퉁불퉁한 표면을 고르게 다듬고 날의 각도와 모양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 ① 돌을 갈아도 돌 자체가 더 단단한 물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 ③ 간석기는 농사 외에도 나무를 다듬거나 사냥하는 등 여러 용도로 쓰였습니다.
- ④ 서로 다른 작업에 맞추어 날과 모양을 다듬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작업에 같은 모양이 알맞은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2

확인 03 정답과 해설

정답: ④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으로 먹을거리를 얻었습니다. 주변의 먹을거리가 줄거나 계절이 바뀌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 ① 구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어 곡식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② 이동 생활은 사람이 거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동굴 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 ③ 이동 생활을 하면서도 한 장소에 잠시 머물며 사냥하거나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관련 본문: Q03

확인 04 정답과 해설

정답: 움집

움집은 바닥을 주변 땅보다 낮게 파고 그 위에 기둥과 지붕을 세운 집입니다. 구석기의 막집과 신석기의 움집은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관련 본문: Q04

확인 05 정답과 해설

정답: ㄱ. 농경 / ㄴ. 목축

농경은 작물을 기르는 일이고, 목축은 가축을 기르는 일입니다. 이 활동들이 시작된 뒤에도 사냥·채집·고기잡이는 계속 중요했습니다. ㄱ에 ‘농사’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관련 본문: 도입·Q04

확인 06 정답과 해설

모범 답안: 씨를 뿌린 뒤 작물이 자라는 동안 돌보고, 다 자라면 거두어야(수확해야) 했기 때문이다.

작물이 자라는 동안 돌보고 다 자란 곡식을 거두어야(수확해야) 하므로 밭 가까이에 머무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표현이 달라도 ‘작물을 돌봄’과 ‘거둠(수확)’이 모두 들어 있으면 맞습니다.

‘때맞춰’라는 말은 없어도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해서’만 쓰면 어떤 일이 정착 생활과 연결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곡식의 저장도 정착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곡식이 자라는 동안 해야 하는 일과 다 자란 뒤에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물었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려고’만 쓴 답은 이 질문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본문: Q04 설명2

확인 07 정답과 해설

정답: ③

여기서 평등 사회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계급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라는 뜻입니다.

- ① 신석기 시대에는 씨족과 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 ②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뚜렷하게 나뉘어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모습은 평등 사회와 다릅니다.
- ④ 농경의 시작이 곧 국가의 성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급과 국가의 형성은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나는 변화로 배웠습니다.

관련 본문: Q04 설명3

확인 08 정답과 해설

정답: ㄱ. 저장 / ㄴ. 조리

먹을거리를 나중에 먹기 위해 담아 두는 것은 저장이며, 물과 함께 끓여 음식으로 만드는 것은 조리입니다. 토기에는 농사로 얻은 곡식뿐 아니라 채집한 먹을거리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ㄱ에 ‘보관’이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관련 본문: Q05

확인 09 정답과 해설

정답: ①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도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토기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유적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토기 외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② 토기는 곡식뿐 아니라 여러 먹을거리를 담고 보관하는 데 쓰였습니다.
- ③ 토기는 음식을 끓이는 등의 조리에도 쓰였습니다.
- ④ 토기를 쓰고 농사를 짓게 된 뒤에도 사냥과 채집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본문: Q05 설명3

확인 10 정답과 해설

정답: ㄱ. 구석기 / ㄴ. 신석기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뎀석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로,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거리를 담아 두는 생활과 연결됩니다.

관련 본문: Q01·Q06

확인 11 정답과 해설

정답: ④

여러 지역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널리 발견되고 특징적인 무늬가 있다는 점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보는 단서가 됩니다.

- ① 빗살무늬 토기는 구석기 시대부터 모든 시대에 걸쳐 쓰인 그릇이 아니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다른 종류의 토기가 있었으므로 ‘유일한 그릇’이라는 설명도 틀렸습니다.
- ②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진 토기도 있습니다.
- ③ 서울 암사동뿐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관련 본문: Q06

확인 12 정답과 해설

정답: ②

간석기를 사용하게 된 뒤에도 뚝석기를 함께 썼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생활 방식이 생겼다고 해서 이전 방식이 즉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① 신석기 시대에도 뚝석기를 사용했으므로 두 종류의 도구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 ③ 뚝석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농경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여러 도구를 함께 썼습니다.
- ④ 간석기를 썼다고 곧바로 국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석기의 생활 변화가 곧 국가의 형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본문: Q01 설명2·Q02 설명3·Q04